광주시 산하기관 임원들 '좌불안석'

윤시장 "스스로 성찰해야" 잇단 용퇴 촉구 발언 속 도시공사 · 디자인센터 · 테크노파크 등 고강도 감사

광주시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특히 윤장현 시장이 최근 민선 5기 때 임 명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우회적으로 언 급한 바 있어 감사와 임원들의 거취가 연 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관실 은 올해 도시공사(9월 29일), 디자인센터 (10월 27일), 테크노파크(12월 3일)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이들 기관 모두 정기감사를 받는 가운데 도시공사는 사장이 현재 공 석이고, 디자인센터와 테크노파크 '수장' 은 민선 5기 때 임명됐다.

광주시는 이들 기관 외에도 '특별한 사 유'가 발생하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 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광주시 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용퇴' 발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지난 18일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 에서 "민선 6기 시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인 적진용이 맞춰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민선 6기 철학과 비전에 스스로 자신 있게 동참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강운태 시장 은 취임 후 박광태 시장이 임명한 공사·공 단,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 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민선 5기와 민선 6기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핵심 관계자는 "윤 시장의 발언은 강운태 시장 때 임명된 공 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이 용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

광주시는 윤 시장의 거취 관련 발언이 나온 18일 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종 합 감사를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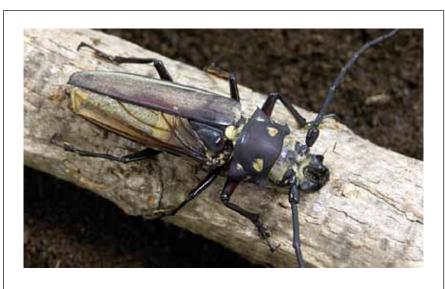
감사 결과, 2008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오주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당 1500 만원을, 직원 16명에게는 2000만원을 부 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 통문화연수원은 설립 이후 총 6차례에 걸 쳐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직원 10명을 특 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진 과정에 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원장의 결재만으로 승진 임용을 한 것으 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과다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하고 오주 원장에게는 경고를, 직원 2 명은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는 원칙대 로 하고,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면서도 "민선 6기 시정 방향과 철학을 감 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수하늘소 살아 있었네

멸종된 줄 알았던 천연기념물 국립수목원서 8년만에 발견

멸종된 줄 알았던 천연기념물 218 호 장수하늘소가 다시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 수컷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 20일 밝혔다. 희귀곤충인 장수하 늘소가 관찰된 것은 지난 2006년 암 컷 한 마리를 발견한 이후 8년만이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 출현시기 인 7~9월마다 광릉숲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관찰되지 않

아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장수하늘 소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수목원은 장수하늘소가 다시 발견

된 것에 대해 "주 서식처인 서어나무

군락이 잘 보전됐기 때문이다"며 "그 동안 보전대책으로 숲의 생태계가 안 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국립수목원은 이번에 발견된 장수 하늘소의 특징과 습성을 조사한 후 광 릉숲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해 장수 하늘소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방안을 수립한다.

장수하늘소는 딱정벌레목 하늘소 과에 속하는 종으로 동아시아에서 서 식하는 곤충 가운데 가장 크다.

몸은 황갈색이나 흑갈색이며, 수컷 의 크기는 85~108mm이고 암컷의 크 기는 65~85mm 가량이다.

/연합뉴스

"잊지 말아요"

세월호 기억저장소 오늘 안산에 문연다

경기도 안산에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담은 공간이 만들어

세월호 참사 추모 기록물 등을 모아 보관, 전시하는 '세월호 기억 저장소'가 21일 안산에 문을 연다.

안산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가 시민들의 성금으 로 단원구 고잔동 664 상가건물에 기억저장소를 마련해 개소하는 기 념행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 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성금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재단'이 보증 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건축가들 이 재능기부를 해 내부 공사를 마 쳤다. 고잔동에는 세월호 참사 피 해 가족 80여명이 거주중이다.

기념행사는 재능기부로 공사에 참여한 건축가 10여명과 함께 추 모 리본 부착 등 실내 꾸미기 형식 으로 진행한다.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 이 후 '기다림'과 '그리움'을 보여주 는 사진과 영상물, 자원봉사자 서 면기록 등을 보관, 전시하게 되며 시민들이 메시지를 적어 모아온 노란색 추모 리본들도 설치된다.

또한, 상자 400개 분량의 기록 물은 서고에 별도로 보관되며, 주 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공간도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한·중 수교 22주년 기념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미디어데이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 두 번째부 터) 변동석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장, 시야칭 중국투어링카챔피언십(CTCC) 회장, 스루웨이 중국대사관 문화담당참사관. 이낙연 전 남지사, 김진석 CJ 헬로비전 대표 등이 헬멧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영암서 열린다

오늘부터 나흘간 F1서킷서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21일부터 나흘간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2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인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중 국 투어링카 챔피언십(CTCC)이 함께 개 최한다.

이 행사에는 슈퍼레이스와 CTCC의 이 번 시즌 각 5전 경기를 비롯해 자동차 묘기 와 엔진 퍼포먼스, 레이싱 모델과 함께 하 는 포토 타임 등의 순서가 준비됐다.

23일에는 걸스데이, 샤이니, 달샤벳, 로 이킴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기념 콘서트'

이에 앞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서는 슈퍼레이스와 CTCC 주최로 두 나라 의 모터스포츠 교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준호 슈퍼레이스 대표이사는 "한국과 중국 모터스포츠 협 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모터스포츠 통 합 리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까지 슈퍼레이스와 CTCC의 통 합 경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2016년 이후 한중 모터스포츠 통합시리즈를 열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변동식 한국자동차경주협회장, CJ헬로비 전 김진석 대표, 중국자동차경주협회 셴퉁 춘 부비서장, 샤칭 CTCC 회장 등이 참석했 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발전 공동선언문 나온다

윤장현시장·이낙연지사 초청 호남미래포럼, 다음달 4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호남출신 각계 주요인사들이 오 는 9월 4일 호남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20일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에 따르면 호남미래포럼은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를 초청해 다음달 4일 오전 11시 광 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발전을 위한 서울과 지방 협력-상생방안' 간담 회를 개최한 뒤 호남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호남미래포럼 이용훈 고 문(전 대법원장), 김승규 공동대표(전 국

정원장), 한갑수 이사장(전 농림부 장 관),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전 보건복지 부 장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 김동신 전 국방장 관, 김정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장 등 이 참석한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정남준 전 행안 부 차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서재홍 조선대 총 장,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이건철 전남 발전연구원장, 조애옥 광주여성경제인 협회 회장, 최양님 광주YWCA 회장 등 광주지역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공동선언문에는 호남 소외와 차별 극 복, 호남발전과 사회통합, 대한민국의 미래 전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깻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